



첼시, 이 한 골로 9년 만에 '빅이어' 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하베르츠(오른쪽)가 30일 포르투갈 포르투의 드라강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전반 42분 에데르송 골키퍼를 제치고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베르츠 천금의 결승골 ...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첫 우승 노리던 맨시티
0-1 패배에 3관왕 불발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이상 잉글랜드)를 제압하고 9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차지했다.

첼시는 30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의 드라강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시즌 UCL 결승전에서 전반전 막판 터진 카이 하베르츠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맨시티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첼시는 통산 2번째 UCL 우승을 달성했다. 첼시는 2011-2012시즌 대회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고 처음으로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 올린 바 있다.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이길던 지난 시즌 UCL 준우승에 그친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은 1년 만에 자신의 이대회 첫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승리로 첼시는 우승 상금 1900만 유로(약 258억원)를 추가했다. 첼시가 벌어들인 이대회 누적 총상금은 약 8000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빅 이어)에 입맞추는 첼시 투헬 감독. /연합뉴스

만 유로(1100억원)에 달한다. 맨시티는 통산 첫 UCL 우승이 불발됐다. /연합뉴스

을 시즌 통산 5번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을 비롯해 카라바오컵(리그컵) 우승도 해내 더블(2관왕)을 이룬 맨시티는 트레블(3관왕) 문턱에서 거꾸러져 아쉬움을 삼켰다.

맨시티는 올 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준결승에서도 첼시에 0-1로 저 '도메스틱 트레블(국내 대회 3관왕)'에 실패한 바 있다.

앞서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이기고 2008-2009시즌과 2010-2011시즌, 두 차례 UCL 결승전에 올라 모두 우승한 펠레 그라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자신의 3번째 UCL 결승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첼시는 전반 14분 메이스 마운트의 침투 패스를 받은 하베르츠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빈 골문에 슈팅해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맨시티는 후반 들어 총공세에 들어갔으나 공격 설계를 맡은 케빈 디브라워너가 첼시 수비수 안토니오 루디거와 강하게 충돌해 후반 14분 가브리엘 제주스와 교체되는 악재를 맞았다.

결국 첼시가 맨시티의 맹공을 끝까지 잘 막아내면서 빅이어는 첼시의 차지됐다. /연합뉴스

“언젠가는 돌아와야죠, 타이거즈로”

KIA 윤석민 '지각 은퇴식'

2011 투수 4관왕·MVP ... 시구로 등판
프로골퍼 도전 ... “그래도 잘하는 건 야구”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었는데 너무 멀더라”면서 KIA ‘언더처블 에이스’ 윤석민이 마지막 등판 소감을 밝혔다.

윤석민이 30일 KT 위즈와의 시즌 홈경기에 앞서 마운드에 올랐다. 이날 지각 은퇴식이 진행되면서 윤석민은 시구자로 마운드에 섰다.

자신을 상징하는 21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 윤석민은 팬들의 박수 속에 마지막 공을 던졌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은퇴식 행사를 열고 팬들과 친한 작별 인사도 나눴다.

윤석민은 “팬들 앞에서 마운드에 다시 서니까 재미있었는데(홈플레이팅) 너무 멀었다”며 “꾸준히 구단과 이야기를 했었다. 코로나 끝나고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길어졌다”고 뒤늦은 은퇴식을 이야기했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운드를 떠나야 했던 그는 무거웠던 책임감을 털어내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지금 행복하다 보니까 미래 설계는 못했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없이 지내고 있다. 운동할 때는 나가면 어떻게 할까? 공을 어떻게 던져볼까? 그런 게 몇십 년 동안 남아 있었다”며 “좋은 선수가 되려고 하는 책임감이 많았다. 선수 생활하면서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아쉬움을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다.

윤석민은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마운드에 오래 서 있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선수 때는 나를 필요하고 찾아주는 게 행복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후회들은 피곤한 후회다. 의미 없는 후회다”며 “오래 쉬다 보니까 마음도 추슬러졌고 99% 잊었다”고 이야기했다.

남은 1%의 미련은 마운드에 남아있다.

윤석민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내 또래 친구, 선배들이 뛰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쉽다. 어깨 관리 잘할 걸, 안 아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향수병같이 남아있다”며 “첫째 아들은 아빠 돈 벌러 나간다고 하면 야구장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도 아빠 야구 하러 온 줄 안다”고 말했다.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팬들에게 더 친근한 선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민은 “말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는 팬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조용하고, 묵묵하고 그런 게 야구선수다운 것이라 생각했다”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데 팬들을 무시하거나 팬들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합을 잘하는 게, 야구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지금 말해서 뭐하겠나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고 싶고 팬들의 사랑 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은 이런 마음을 담아 은퇴식에서 팬들과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마스크 5만장을 기부했다. 지난해 겨울에도 사비를 들여 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윤석민은 “뒤라도 헤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각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다 보니까 내가 마스크라도 선물해 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쉬움만 남은 것은 아니다.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도 많다. 윤석민은 “기억에 남는 경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경기가 기억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 앞서 이날 은퇴식을 하는 윤석민이 시구를 위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남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른 답을 했다. 이번에는 선발로 전향해서 첫 승했던 경기가 기억난다. 선발로 데뷔했고 내리 3번 지다가 첫 승을 완봉승으로 했다”며 “시즌은 당연히 2011시즌이다. 국제 대회는 WBC 베네수엘라전이다. 대표팀에서 선발 투수를 하고 싶었는데 선발 통보받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타선 지원도 받고 경기도 잘해서 기억 남는다”고 언급했다.

윤석민은 2011년 투수 4관왕에 등극하면서 KBO리그 역사에 선종영과 함께 이름을 남겼다. 이해 MVP 트로피도 들어 올렸다.

방송과 프로 골퍼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윤석민이 돌아올 곳은 그라운드가. 시간을 두고 야구를 지켜 보면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민은 “밖에서 보니까 야구가 더 잘 보이는데 야구라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연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니까 후배들 대할 때도 조심스럽다. 너무 소중한 선수들인데 코치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제일 잘하는 게 야구라 꾸준히 야구 보면서 야구 공부 놓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하고 싶은 것이다.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다. 타이거즈에서”라고 그라운드로 돌아올 순간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또 ... '주말 징크스'에 올랐다

KT에 3-4 ... 1점 차로 저
시즌 주말 성적 1승 16패



‘호랑이 군단’의 주말 징크스가 계속됐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6차전에서 3-4, 1점 차 패배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키움전부터 세 경기 연속 역전승을 연출하면서 1점의 승리를 만들었던 KIA지만 주말 두 경기에서는 아쉽게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올 시즌 KIA의 주말 성적은 1승 16패가 됐다.

전날 0-3에서 5-3으로 승부를 뒤집고 도 8회초 4실점을 하면서 5-7패가 기록됐다. 30일에도 0-3에서 3-3을 만들었지만 9회 실점이 올라가면서 3-4로 패했다.

병텐의 부상으로 이민우가 선발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이민우가 1회 2사에서 강백호에게 중전안타를 맞았지만, 장성우를 헛스윙 삼

진으로 잡으며 이닝을 종료했다.

하지만 2회 선두타자 알몬테에게 2루타를 내줬다. 김병희의 땅볼로 1사 3루. 권동진의 우전 안타 때 알몬테가 홈으로 들어왔다. 이어 폭투로 1사 3루, 이흥구의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높게 뜨면서 희생플라이가 됐다.

2회 실점은 했지만 이민우가 큰 위기 없이 3, 4, 5회를 넘겼다.

김태훈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3회는 강백호를 병살타로 잡아냈고, 4회 선두타자 장성우를 볼넷으로 출루시켰지만 세타자를 범타로 처리했다. 5회는 유격수 박찬호의 좋은 수비를 통해 삼자범퇴였다.

하지만 6회 세 번째 실점이 올라갔다.

1사에서 강백호에게 좌전안타를 내줬다. 장성우의 헛스윙 삼진으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알몬테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2사 1-3루가 됐다. 그리고 1루에 있던 알몬테가 스타트를 끊었다. 포수 김민식이 2루로 송구를 했고, 역시 스타트를 끊은 3루주자 강백호가 홈으로 쇄도했다. 최정용이 홈에 송구했지만, 강백호의 발이 빨랐다.

이후 헛스윙 삼진으로 이민우가 6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이와 함께 이

민우는 6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쿠에바스에게 막혀있던 타선이 6회 마침내 움직였다.

이우성과 최정용이 연속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박찬호의 희생번트로 2사 2-3루가 됐다. 최원준의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1-3이 됐다. 김태진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터커와 이정훈이 연속안타를 날리면서 경기를 3-3 원점으로 돌렸다.

박진태가 탈삼진 2개를 더해 삼자범퇴로 7회를 막았고, 8회에는 장현식이 출격했다. 장현식은 볼넷 하나는 내렸지만 무실점으로 8회를 막은 뒤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선두타자 알몬테의 타구가 펜스 맞은 2루타가 됐고, 신병기의 희생번트로 1사 3루가 됐다. 이어 유한준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다시 리드를 내렸다.

KIA가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휴식을 위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김선빈과 황대인을 연속해서 타석에 세웠지만 기다렸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